문 의	특허심사3국 차세대수송심사과	과 장 김일규 042-481-5830 사무관 정홍영 042-481-544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5년 5월 15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5월 14일(목)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조선해양 미래 인재, 특허 출원 저요! 저요!

- ‘2015 캠퍼스 조선해양 발명특허 페스티벌’ 충남대 류재원 학생 특허청장상, 경상대 장시원 학생 부산광역시장상 수상 -

- 세월호 사건 이후 선박안전관련 기술에 대한 학생들 관심 크게 늘어 -

발명의 달 5월을 맞아 특허 역량을 갖춘 미래 조선해양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의 열기가 뜨겁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대한조선학회(회장 신종계), 부경대학교(총장 김영섭)와 공동으로 전국 11개 대학 조선해양학과 대학생들이 함께 하는 발명·특허 축제인 ‘2015 캠퍼스 조선해양 발명·특허 페스티벌’을 5.14(목)~5.15(금) 양일간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조선해양전공 학생들이 참여한 ‘특허명세서 작성 경진대회’ 시상식을 비롯하여 ‘발명·특허 특강’, ‘특허 골든벨’, ‘대형 조선사 취업설명회’, ‘조선해양 기술전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된 '특허명세서 작성 경진대회'의 시상식이 개최된다. 지난 3월부터 서울대 등 전국 11개 대학에서 특허 심사관과 재능기부 변리사 등이 직접 학생들에게 발명·특허 특강을 실시한 바 있고,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학기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총 166팀이 특허 명세서 경진대회에 참가, 아이디어의 창의성과 이를 특허 권리화하는 능력에 있어 자웅을 겨뤘다.

심사 결과, 충남대 류재원 학생, 경상대 차승주·김성민 학생팀이 특허청장상을, 경상대 장시원 학생, 인하대 Azzira(외국인 유학생) 학생이 부산광역시장상을, 서울대 이우열 학생, 부경대 김민경 학생이 부경대학교 총장상을, 충남대 유창선·임병도 학생팀, 군산대 봉대순 학생이 각각 대한조선학회장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특허명세서 경진대회에서는 세월호 사건 이후 선박의 안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선박 침몰 시 승객이 선외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선실 내 소형 대피소', 선체가 기울 때 바닥에 홈 형태의 사다리 구조가 나타나는 '선박 긴급 탈출 및 인명구조용 사다리 장치'와 같은 아이디어들이 제시되 주목을 받았다.

'선박 프로펠러의 비대칭 가변각도 날개'라는 발명으로 특허청장상을 받게 된 충남대학교 류재원 학생은 "막연하게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가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될 수 있었으며, 어렵게만 느껴졌던 특허 명세서 작성을 내가 직접 해낼 수 있었던 점이 제일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심사를 진행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김성현 차장은 “어떤 발명은 실제 업계에서 바로 쓸 수 있을 정도”라면서,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놀랍다.”고 밝혔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해 우리 조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대학과 조선업계가 공동으로 특허 역량을 갖춘 우수한 산업인력을 양성해 나가려는 노력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정부도 우리 조선해양업계가 지식재산 분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